

저성장 '불안 심리' 확산... 산업구조·규제 등 체질개선 시급

⚠ 긴급점검 이제 내리막길인가

- 글 쓰는 순서 -

1. '피크 코리아' 그림자 드리운 韓 경제
2. 경제는 심리... 모든 경제주체 위축
3. 경제 이끌 기업들 "앞이 안 보인다"
4. 소비시장 주체 가계 "살 돈이 없다"
5. 리더십 없는 정부 "백악이 안 통해"

11일 오후 1시 서울 마포구 공덕시장. 20년 가까이 옷 수선 가게를 운영하는 70대 A(여)씨는 "요새는 하루에 2~3건의 퇴짜받기도 힘든 날이 많다"며 "이대로 더 가다간 사실상 폐업 신고해야 할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시장에서 만난 상인 50대 조모씨는 "계란 값이 올랐네, 과일값이 더 오르네 하는 뉴스를 보면 가슴이 타들어 간다"며 "하루빨리 경제가 정상화됐으면 한다"고 했다.

인천에 등지를 틈 중소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김광중(가명)씨는 지난해 공장 증설을 알아보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터진 후 계획을 접었다. 김씨는 "나라 경제가 흔들리는데 큰 비용을 투자할 엄두가 안 난다. 지금은 투자할 시기도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경제가 뜻 없이 망망대해에서 표류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한국경제 전반에 퍼진 '불안' 심리는 기업의 투자 시계를 세웠다. 한국 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하던 소비도 얼어붙었다. 뛰는 물가와 높은 금리 부담에 돈 쓸 엄두가 나지 않아서다. 산업구조 혁신과 수출 시장 다변화 등 새로운 통상 환경을 위해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 투자 '야성적 충동' 사라져

경제 여건은 녹록지 않다. 어려운 한해가 될 것이라는 데, 이미 진행형이라는 데 의견을 다는 이는 별로 없다. 우선 세



13일 황학동 주방거리에 위치한 중고매장 앞에 주방 장비들이 쌓여있다. /손진영기자 son@

'비상계엄·관세전쟁' 발등의 불 소비·투자 줄며 잠재 성장률 악화 인구 고령화 가속... 소멸위기 직면

계경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 리스크에 흔들리고 있고, 그러니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도 어렵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2월 누적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75% 감소했다.

내수도 마찬가지다. 악화된 환경 탓에 투자와 소비가 쪼그라들고 있다. 통계청의 '2025년 1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재화소비를 뜻하는 1월 소매판매가 전월보다 0.6% 감소했다. 소매판매는 지난해 10월과 11월 0.7%씩 감소했다가 12월(0.2%) 소폭 반등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설비투자도 전월보다 14.2% 빠졌다. 2020년 10월(-16.7%)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주요 내수지표 중 하나인 건설경기도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기업으로선 원가는 오르고 판매는 시들하니 투자 여력이 많지 않다. 무엇보다 나라 안팎의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 어려움을 이겨내고 과감하게 투자하는 기업가의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

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는 생산 위축으로 이어진다.

'부채의 덩어리'에 빠진 가계는 고금리 이자를 갚느라 소비할 여력이 별로 없다. 지난해 3분기 적자를 낸 가구 비율이 23.7%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의 4분의 1 가까이 적자상태란 의미다. 소득 수준별로 보면 심각성은 더한다. 소득 상

위 20%(5분위) 가구는 적자 가구 비율이 7.1%인데 비해,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는 54.8%에 달했다. 하위 계층의 수입이 지출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계 적자로 소비는 엄숙해졌다.

◆저성장 현실로... '코리아 소멸' 위기 직면

수출도, 내수도 기댈 게 없으니 잠재 성장률을 밀도는 1%대 저성장이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한국은행은 통상 갈등 심화로 미국이 주요 무역 적자국에 부과한 관세율을 내년까지 유지할 경우, 올해와 내년의 경제 성장률 모두 1.4%로 추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신(新)산업 부재, 낡은 규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한국의 10대 수출 품목은 반도체 집중만 더욱 심해졌을 뿐 20년 전과 거의 그대롭다. 컴퓨터·영상기기가 빠지고, 디스플레이·가전제품이 진입한 정도다. 중국의 공세에 밀려 경쟁력을 잃었는데도 구조조정을 미루

는 바람에 조선·해운업이 큰 위기를 겪은 게 불과 10년 전이다. 최근엔 철강·석유화학이 비슷한 상황에 부딪혔다.

빨라지는 인구 고령화는 '코리아 소멸'을 소환한다. 쓸 돈도 부족하고, 일할 체력도 되지 않는 사회가 되기 때문이다.

조은아 한국은행 금융안정연구팀장은 최근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미래 변화와 금융의 성장 전략 세미나'에서 "(고령층이)주택 처분 등 대출 축소는 주거지 변화의 두려움이나 심리적 거부감으로 쉽게 택하지 못한다"며 "자산이 있는 가계임에도 소득이 부족해 소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현상이 짙어진다면 기업투자나 내수 부진은 더 악화할 수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인구 고령화의 어두운 면이 '한국 경제'의 또 하나의 소멸 트리거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희미해지는 기업 혁신 투자자들 韓 시장 외면

외인, 비상계엄 이후 10조 이상 매도 기업 체력 고갈... 증시침체 악순환

한국으로부터의 엑소더스인가. 외국인 투자자 동향이 심상치 않다. 연일 한국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0조원이 넘는 주식을 내다 팔았다. 그 여파로 주식 시장은 2500선에서 맴돌며 맥을 못 추고 있다.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팔아치운다는 것은 우리 경제가 그만큼 녹록지 않다는 방증이다. 한국 경제가 허덕이는 데는 경쟁력을 잃어가는 산업구조와 함께 트럼프발 관세전쟁과 반도체 가격 약세 같은 외생 변수가 작용했다. 기업들의 체력이 고갈되다보니 외국인이 떠나고 증시가 침체하는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셈이다.

양철원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 왕수봉 아주대 경영학부 교수, 최재원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달 발표한 '무

엇이 과연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주가순자산비율(PBR)을 설명하는가' 논문을 통해 국내 주식시장 내 기업들의 성장 잠재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짚었다.

연구진은 "자본투자 규모가 크고 투자 성과가 좋은 기업일수록 PBR이 높았다"며 "한국 기업의 PBR이 낮다면, 이는 업력이 길고 유형자산 투자가 활발한 기업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한국의 산업구조가 개선돼 성장주에서도 유망한 기업들이 많이 나타날 필요가 있고 이런 방향으로 정부 정책도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이 희미해지자 개미들도 등을 진다. 지난달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한미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4.5%가 미국 증시를 선호한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27.2%는 기업의 혁신·수익성을 꼽았다. 반면, 국내 자본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34.6%가 '국내기업의 혁신성 정체'라고 꼽았다. /신하은 기자



제240회
화성특례시의회 임시회

일시 | 2025. 3. 18.(화) ~ 3. 20.(목)

•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

화성특례시의회는 늘 104만 화성시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